

## 6th. 대응

사실 이는 앞선 설명들에서 다루었습니다. 3rd 과정과 인과에서 문장 구조가 똑같음을 빌미로 동일한 인과 관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근거가 바로 이 [대응]입니다. 대응은 고전시가의 대구법처럼 상응하는 문장 구조로 서술되거나 단어가 치환되는 경우(paraphrasing)들을 말합니다. ‘같은 말이 같은 말인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대응]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대응]은 앞선 논리들에 모두 녹아서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전 논리들과 다르게 조금 길게 지문 해설을 곁들여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대응을 찾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지시어/대명사’가 가리키는 바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지나지 말고 의식적으로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구조가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로 넘어갈 때 이 둘을 대응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밑의 지문에서 적용해봅시다.

### 22.06.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 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1. 지시어나 대명사를 찾고 가리키는 바를 적어보자.

2. 떡밥으로 제시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을 찾고,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적어보자.

계몽주의 사조	베카리아
자유와 행복 추구	이익 → 저울질하고 행동하는 것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 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를 일부 포기하고 나머지를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1. 넷째 줄 : ‘그에 따라’ → ‘이익을 저울질해본 결과에 따라’  
 밑에서 넷째 줄 : ‘이를 위탁받아’ → ‘개인의 자유의 총합이 구성하는 주권을 위탁받아’  
 마지막 줄 : ‘이런 논증’ → ‘자유를 일부 개인이 희생해 모은 자유의 총합인 주권으로 구성된 법은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임’

2.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 :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 : ①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한 주장들  
 형벌이란 전체 복리(행복)를 위해 자유의 총합(주권)으로 강제력을 위반자에게 행사하는 것  
 ② 형벌에 관한 새로운 주장들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이 글은 형벌이란 사회 형성의 근원인 ‘주권(자유 일부)’을 양도받아 위반자에게 집행하는 벌로 양도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글의 전부이며 여러분들이 도입부에서 얻은 정보만으로도 지문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뒷부분들에 1문단에서 나온 일반적인 내용이 점차 상세하게 구체화됩니다. 평가원 지문은 결국 맥락에 따라야 하므로 계속해서 1문단에 나온 추상적인 문장을 시작으로 하여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지문에 의하면, 뒷부분에서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양도한 일부의 자유보다 더한 생명을 빼앗는 사형은 1문단에서 말한 ‘양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문단의 내용이 뒤에서 계속 대응되는 겁니다.

10. 윗글에서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하다.
- ②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 존재이다.
- ③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 ④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
- ⑤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 없다.

개개인의 주권을 양도받아 주권자가 관리하므로 답은 3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으나 다른 선지들 모두 1문단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로 말이죠.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범죄를 막는 울타리로서의 형벌

- 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② 법률로 엮어 뚜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높낮이를 정해야 한다.
- ④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한다.
- ⑤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한다.

1문단에 따르면 개개인이 양도한 자유의 일부를 모아, 위반자에게 주권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형벌'에 대한 베카리아의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넘어서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과도하게 범위를 넘어서는 5번은 당연 잘못된 선지일 겁니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베카리아의 입장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사형을 반대한다.
- ② 사형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으므로 일반 예방주의의 입장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되는 잔혹한 형벌이어서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인정하지 못한다.
- ④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한다.
- ⑤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에서 사형을 무기 징역으로 대체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가장 큰 가치 = 생명 → 생명은 양도의 범위를 한참 넘어섰으므로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이러한 대응만 잘 찾아도 문제를 풀 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고, 이게 바로 글의 원리죠.

연습지문으로 다음 지문에서 [대응]을 약착같이 찾아봅시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5.11B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 펼친다.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 끼여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를 칸트에게서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보았다.
- ③ 칸트는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 ④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하여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선구적으로 이끌었다.
- ⑤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28. [A]에 제시된 '취미 판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② '유용하다'는 취미 판단 명제의 술어가 될 수 없다.
- ③ '모든 예술'은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 ④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개념적 규정은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 ② 공통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 작품의 미를 판정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
- ③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다.
- ④ 예술 작품에 대한 나의 취미 판단은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을 보여 준다.
- ⑤ 예술 작품에 대해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

3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간주했기
- ② ㉡: 피력한다
- ③ ㉢: 개입하지
- ④ ㉣: 소지하는
- ⑤ ㉤: 확산되어

Step 1. 지시어나 대명사를 모두 찾고 각각이 가리키는 바를 적어보자.

Step 2. 띄어쓰기로 제시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장을 찾고,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적어보자.

각 문단별로, 문장마다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대응]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1문단]

1.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합리론 →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을 중시 ∴ 미적 감수성은 논외.

; 오히려, **미적 감수성과 이성이 대비되나** 봐요. ∴ 미적 감수성: 확실X & 이성X

2.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미적 감수성 : 확실X → **어떤 원리도 없다** (자의적이다.) →  $P_1$  of **미적감수성**으로 칭함

→ 세계의 신비를 풀지 못한다 → 그래서 미적 감수성을 논외로 했다.

왜? 합리론자들은 **세계의 신비를 못 풀면 쓸모없다**고 생각하네요.

즉, 이성이 아니면 쓸모없습니다. ... 이성 X →  $P_2$  of **미적감수성**으로 칭함

아하. 세계의 신비를 푸는 게 논내(?)구나. 논내는 없는 단어지만, 논외랑 대비된다는 걸 강조한거고 즉, 합리론자들의 관심은 ‘세계의 신비’를 푸는 걸 겁니다. **합리론자들의 목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미적 감수성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P_1$  : 원리가 없다(확실X) //  $P_2$  : 쓸모가 없다( =세계의 신비 못 풀; 이성X)

3.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가치와 위상을 지닌다는 주장을 펼친다.

미적 감수성 → 미감적 판단력

1) 어떤 원리가 존재\_  $S_1$  ; **확실 O** 2) 이성에 못지않은 가치와 위상\_  $S_2$  ; **이성 O**

$S_1$ 은  $P_1$ 과 반의어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S_2$ 의 경우에는 어떠한 가치나 위상이 있어야 할 텐데,

① 합리론자들의 가치를 따르면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기여해야 가치나 위상이 확보될 것입니다.

② 아니면 합리론자들의 가치에 버금가는 새로운 가치를 칸트가 제시하고, 그걸 미감적 판단력이 갖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P_2$ 가 세계의 신비를 못 푸는 것이니, 둘 중  $S_2$ 에 걸맞은 건 처음에 언급한 ①이겠네요.

4.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

어떤 작업일까요. 미감적 판단력이 이성애 버금가는 즉,  $S_1$ 과  $S_2$ 를 증명해내는 작업을 앞으로 칸트가 할 것이고 그게 바로 '취미 판단 이론'일 겁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지시어 하나에도 신경을 써보는 경험이 국어 실력을 올려줍니다. 단순히 여러 지문을 읽어보기만 하고 문제만 풀면 실력의 증진이 안 됩니다. 이 지문에서 배워서, 다른 지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스킬을 일반화해내는 것, 그게 공부임을 잊지 마시다. 계속해서 일일이 [대응]을 찾으며 읽어봅시다. 1문단을 빠르게 했으니 이후는 1문단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며 대응이 계속될 겁니다.

[2문단]

1.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취미판단** :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

2.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모든 판단이 명제 형식으로 환원 : 어라? 취미 판단도 가능?

규정적 판단: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 **객관적 성질**( 술어 P )을 주어 S에 부여 by **보편적 개념**

3. 이와 유사하게 취미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 취미 판단: 미/추가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 미/추는 원래는 주관적 성질임

4.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역시나 우리가 예상한대로 주관적이네요. 규정적 판단(합리론)처럼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취미 판단은 주관적입니다.

→ 그러니까, 1문단에서 말했던 '**어떤 원리**'가 객관성일까요?

5.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만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규정적 판단(합리론)은 앞서 말한대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성향을 띠므로,

**객관적 & 보편적** → 개별 말고도 모든 대상을 묶은 단위에도 적용 가능.

∴ 규정적 판단이 가지는 두 가지 특성: **객관성, 보편성** \_ ‘어떤 원리’

6.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취미 판단은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즉, 주관적이므로 오로지 하나에만 적용!

→ 앞서 했던 것처럼 [‘하나의 단위로 묶음’ = **개념적 일반화(객관화)**]이므로, 애초에 취미 판단의 정의가 꽤나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하므로 묶음 불가능.

7.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 취미 판단: 오로지 **주관적 감정**에 의거함 with **순수한 태도 ( 미감적 태도 )**

8.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이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 오로지 미/추 판정이라는 **목적**을 순수하게 지킨다는 차원에서 원리가 있음 ... S<sub>1</sub>

계속해서 봅시다.



[3문단]

1.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 취미 판단: **공동체적 차원**의 것 → 잉? 주관적 태도인데 공동체라 흠.

2.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순수한 미감적 태도(주관적)→ 미감적 공동체 ??  
새로운 단어인 '**미감적 공동체**'가 뭔지 알아내야겠습니다.

3.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유 → '공통감' ( 공통의 미적 감수성 )

4. 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 공통감 : 미적 규범 of 취미 판단

5.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 공통감이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함. → 주관적 보편성이 생김.  
∴ 공동체가 **동일한 미감(공통감)**을 가지므로 **보편성**이 생김 \_ '어떤 원리' ... S<sub>1</sub>

6.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

- 공동체의 같은 감각 = 공통감 → **[개인의 취미 판단 = 공동체의 판단]** ... 보편성

이제 이 글의 Climax인 마지막 문단이 나옵니다. 1문단을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알지 못했던 정보들과 떡밥이, 2, 3문단을 읽으며 푹푹해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다만 수험생들이 다시 1문단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왔던 길을 다시 간다는 느낌에 시험장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은 마지막 문단에 1문단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한테는 상기지만, 1문단을 놓친 사람에게는 더 단순한 마지막 문단은 힌트가 될 수 없겠죠

[4문단].

1.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이다.

- 이러한 분석은 '취미 판단 이론'을 뜻함 → **목적: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

2.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성'과 '미적 감수성' 이 두 가지라네요 (인간이 두 능력을 모두 갖고 있으니, 인간을 설명하려면 두 개 모두 필요).

→ **동일한 위상과 가치 of '이성 & 미적 감수성' ... S<sub>2</sub>**

3.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 합리론에서 이성이 가치있다고 여기게 해준 객관적 타당성이 오히려 이성의 한계일 수 있다.

4. '세계'는 개념으로는 **날날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 세계가 무한하므로 '**객관적 타당성**'이 이성의 한계가 된다.

→ 이성의 역할; 세계의 신비를 푸는 것. 따라서 객관적 타당성이 세계의 신비를 밝혀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네요. (∵ **날날이** '무한'을 밝힐 수 없음)

5.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 규정적 판단과 달리 취미 판단의 미적 감수성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규정이 안 됨

**(규정 = 여러 개념을 하나로 묶음)**

오히려 개념을 규정하지 않아야 날날이 밝히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보편성**으로 무한한 세계를 밝혀낸다는 것이 핵심이네요.

6.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의 단초를 칸트에게서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 칸트의 취미 판단을 통해 격상된 **미적 감수성의 가치와 위상**

모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대 초기 합리론에서 여겼던 미적 감수성의 결점

- ①  $P_1$  : 원리가 없다 (확실하지 않다)
- ②  $P_2$  : 세계의 신비를 풀지 못해 쓸모없다 (이성적이지 않다)

메타인지를 통해 해결책을 생각해보면,  $S_1$  : 원리가 있다 (확실하다)

$S_2$  :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성에 따른 규정적 판단 :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짐

취미 판단 : 미/추 판정은 주관적이지만, 오로지 미/추 판정이라는 목적을 순수하게 지킨다는 차원에서 원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S_1$

공통감으로 인해 만들어진 '주관적 보편성'은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로워져, 이성이 풀지 못하는 세계의 신비를 밝혀낼 수 있음 →  $S_2$

∴ 미적 감수성 역시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을 지닌 심오한 지혜이다.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보았다.
- ③ 칸트는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 ④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하여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선구적으로 이끌었다.
- ⑤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 지문에서 문제를 출제한다면, 당연히 미감적 판단력이 왜 규정적 판단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심오한 지혜'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P_1$ ,  $P_2$ 와  $S_1$ ,  $S_2$ 를 포함한 칸트의 논리가 문제로 출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첫 문제이니만큼 칸트 논리의 결론인 ⑤ 선지가 답이 됐네요

28. [A]에 제시된 '취미 판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② '유용하다'는 취미 판단 명제의 술어가 될 수 없다.
- ③ '모든 예술'은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 ④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미 판단은 원리가 있습니다 ...  $S_1$  / 그 원리에 대해 물어보네요. 권선징악은 미/추 판정이 아닌 다른 목적인 사회적 윤리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취미 판단의 원리를 위배했습니다. ④

29.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념적 규정은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 ② 공통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 작품의 미를 판정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
- ③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다.
- ④ 예술 작품에 대한 나의 취미 판단은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을 보여 준다.
- ⑤ 예술 작품에 대해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

이론상  $S_1$ 까지 나왔으므로  $S_2$ 가 나오면 문제가 참 예쁜 것 같습니다. 바로 미감적 판단력이 이성애 근거한 '규정적 판단'과는 달리, '주관적 보편성'으로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대뜸 취미 판단에 '개념적 규정'을 달아버렸으므로 ①이 눈에 잘 보일 겁니다.

문제 푸는 것은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정확한 주제를 알아내면 문제는 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누구보다 해당 지문으로 100%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 풀이를 넘어서는 해당 지문을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배우고 있는 여러 글의 원리들이 어떻게 출제자들에게서 사용되고, 주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지를 파악해야 수능장에서도 무리없이 출제자의 머리 위에서 시험지를 볼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주 섬세하게 [대응]을 극단적으로 해보면서 이 지문을 풀어보았습니다. 지시어, 대명사로부터 추적하고 /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장으로부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문장까지 연결지며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독서 공부를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대응]은 결국 평가원이 글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맥락]에 따른 논리적 서술 그 자체라는 걸요.

여기까지가 모든 글에서 흔히 쓰이며, 필수적으로 우리가 수능 국어를 대비함에 있어서 알아야 하는 글이 쓰이는 원리입니다.

글이 쓰이는 원리를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독해할 때는 이 원리를 역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해당 원리들이 존재하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며 의식적으로 해당 원리를 이용해서 지문을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겁니다. 이제 글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말 그대로 독자가 필자와 별개로 능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독해 태도를 말합니다. 글이 쓰이는 원리로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태도들이니, 정리를 한 후에 무작위 지문들에 적용해보는 연습이 역시나 필요할 겁니다.